

군수님-의원님 아직도 정치싸움?

무안·순천·강진 공조 전혀 안돼 국비확보 큰 차질

담양·구례·완도 예산국회 수시협의 성과 대조적

본격적인 예산 국회를 앞두고 재정난에 허덕이는 전국 자치단체장들이 지역구 국회의원들과 함께 치열한 국비 확보로 봄비전을 펼치고 있다.

그러나 전남지역 일부 기초자치단체장들과 일부 지역구 국회의원들은 과거 지방선거 과정 등에서 형성된 정치적 감정을 펼치지 못하게 서로 외면하고 있어 지역 발전에 대해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최근 국회의원 회관에는 이달 중 순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국회의 정부 예산 심의를 앞두고 전국 자치단체장들의 밤길이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다.

그동안 정부로부터 확보한 예산 ‘굳히기’나 예산 반영이 안 된 현안 사업 ‘끼워넣기’를 위해 자치단체장들이 지역 국회의원들과 함께 막바지 ‘예산 국회 로비전’을 치열하게 펼치고 있는 것이다.

실제로 최형식 담양군수와 서기동 구례군수는 기획재정부 등 정부 부처 방문 전후에 지역구 국회의원인 김효석 의원과 ‘전략회의’를 갖는 등 막판 국비 예산 확보에 나서고 있다. 김 의원도 전략회의 결과를 토대로 정부와 여당 예결위원은 물론 청와대 고위 인사들을 수시로 접촉하며 ‘예산 전쟁’을 치르고 있다.

이에 따라 담양군과 구례군은 관광 인프라 구축, 농업지원시설 예산, 정부 공모 사업 등에서 상당한 성과를 거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박철환 해남군수와 김종식 완도군수 예산 국회를 앞두고 김영록 의원과 수시로 당정협의를 가진 결과, 지역 SOC 사업 예산 확대는 물론 경관정비 및 주민소득사업 예산 등에서 기대 이상의 성과를 거두고 있다.

이에 대해 무안군 서둘사무소장은 “지역 최대 현안사업인 ‘기업도

역의 미래를 열어가는 ‘시너지 효과’를 얻어내고 있는 것이다.

이에 반해 전남 일부 자치단체장과 일부 국회의원들은 예산국회가 코앞에 다가왔지만 정치적 감정을 펼쳐버리지 못하고 있다.

대표적인 예가 이운석 국회의원과 서삼석 무안군수. 두 사람은 지난 지방선거에서 군수 공천을 둘러싸고 원색적인 감정 대결을 벌인 바 있다. 이를 반영하듯 무안군과 이운석 의원간 예산 공조가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 의원 측 관계자는 “기대도 하지 않았지만 예산 국회를 앞두고 무안군 인사들은 코빼기도 보이지 않고 있다”며 “나름대로 확보한 현안 자료를 토대로 국비 예산을 확보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무안군 서둘사무소장은 “지역 최대 현안사업인 ‘기업도

시’를 반대한 의원과 무슨 예산 협의를 할 수 있느냐”며 “말도 섞기 쉽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국회 예결위 민주당 간사인 서갑원 의원과 노관규 순천시장과의 공조 체계도 시원치 않다. 지난 지방선거에서의 감정도 있지만 순천 최대 현안인 ‘정원 박람회’를 놓고도 두 사람이 다른 입장을 보이면서 원만한 예산 공조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평가다.

여기에 지난 지방선거에서의 공방으로 관계가 소원해진 무소속의 황주홍 강진군수와 유선호 의원과의 공조 체계도 원만치 않은 상황이다. 유선호 의원 측 관계자는 “군수와 공조는 원활하지는 않지만 실무 차원에서 지역 현안 예산 확보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지역 정관계 인사들은 “자치단체장과 지역구 국회의원들이 감정과 현안을 구별하지 못해 예산 확보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며 “이는 자치단체장과 지역구 의원의 미래는 물론 지역 발전까지 어둡게 할 수 있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농협까지 ‘공룡 마트’ 수완지구 하나로클럽 내년 개장

“영세점포 다 망한다” 강력 반발

전국 최대 규모의 농산물종합유통센터 개장을 앞두고 광주지역 중소상인들이 지역상권을 위협한다고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지난달 31일 중소상인살리기 광주네트워크 등 지역 중소상인들에 따르면 광주시 광산구 수완지구 광주농산물종합센터 내에 들어설 ‘농협 하나

로클럽’을 상대로 2일 중소기업중앙회 광주·전남지역본부에 사업조정신청을 제기할 방침이다.

이들은 “수완지구에 들어설 농산물종합유통센터는 농협센터를 빙자한 대형 마트일 뿐”이라며 “수완지구 일대 2km 이내에 롯데마트와 이마트, 훌플러스가 영업하고 있는데다 하나

로클럽까지 문을 열게 되면 광산구내 시장 상인을 비롯해 신창, 수완, 하남 일대 중소상인들은 폐업 위기에 직면한다”고 주장했다.

또 “하나로 클럽이 대형마트와 다른 점이 있다면 바나나, 파인애플 등 수입 과일만 판매하지 않을 뿐 대형마트에서 판매하는 가공식품 등을 모두 취급 한다”며 “실제로 율산, 충북 등 농산물 유통센터가 들어선 곳의 인근 지역 영세자영업자들이 이미 극심한 경영난에 시달리고 있다”고 강조했다.

수완지구에 들어설 농산물종합유통센터는 전국 최대 규모로 연면적 4만5768.5m²(1만3845평)에, 영업면적 1만6072.7m²(4862평)에 달한다.

농협중앙회가 총사업비 885억원을 투입해 내년 초 오픈을 앞두고 있는 유통센터에는 호남권 최대 종합쇼핑센터를 목표로 한 소매시설 하나로클럽(8234.7m²)을 비롯해 도매매장(2766.9m²), 식재료매장(3117.3m²), 고객편의시설(문화센터, 병원, 약국, 미용실 등) 등이 들어선다.

농산물종합유통센터가 호남권 최대 농산물 도매 물류기지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예상되자 지역 농산물도매시장 중·도매인들의 불안감도 확산되고 있다.

각화농산물도매시장 중도매인 이모(36)씨는 “유통의 주도권이 이미 대형유통업체로 넘어가면서 도매시장도 어려운 상태”라며 “각화동과 풍암동 도매시장으로도 충분한 상태에서 전국 최대 규모의 유통센터까지 문을 열게 되면 기존 도매시장 상인들의 영업력은 더 위축돼 경영난은 가속화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농협 관계자는 “유통센터는 농협이 산지농민들과 직접 계약을 통해 고품질 농산물을 확보한 뒤 이를 찬값에 소비자에게 도·소매하는 형태로, 경매를 통해 운영되는 기존 농산물시장과는 개념이 다르다”며 “농가들은 안정적인 판매망을 확보하고 소비자는 우수한 농산물을 보다 저렴한 가격에 이용할 수 있어 장점이 크다”고 강조했다.

/이은미기자 emlee@

광주시와 전남도, 광주일보가 주최한 ‘2010 그린 광주·전남 자전거 축제’ 참가자들이 지난달 31일 오전 광주시청을 출발해 영산강변을 향해 힘차게 내달리고 있다. 500여 동호인들이 나주 노안~장등교~호남대 광산캠퍼스로 이어진 46km의 로드 레이스에 참가해 열띤 경쟁을 벌였다. ▶관련기사·화보 18면

모란장, 인촌상 특별상을 수상했다.
유족으로는 이화일 조선내화 회장 등 6남4녀.

장례는 조선내화 회사장으로 치러지며, 빈소는 서울 아산병원 장례식장(02-3010-2631), 분향소는 조선내화 광양·포항 공장과 목포 성육기념관에 마련됐다.

발인은 2일 오전 5시, 영결식은 오전 11시 목포 성육기념관에서 열린다. 장지는 해남군 황산면 부곡리 선영.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그린/홈/1/0/0/만/호/참/여/기/업

녹색바람을 전합니다

녹색성장기업 삼원테크(주)는 신재생에너지 부문의 선두주자로서
지구촌 친환경 그린에너지 창출에 선도적 역할을 다하고자 합니다.

풍력발전기 사업부문

- Hybrid LED 가로등 (0.7KW)
- 그린홈 100만호 공식지정 풍력발전기 (2.4KW)
- 전원주택/산업용 풍력발전기 (3.0~7.0KW)

지사모집 풍력발전기 판매사업에 참여하실분

수소발생기 사업부문

- 자동차 엔진크리닝용 수소발생기 (0.8 Kg/cm²)
- 철판절단 / 보일러용 수소발생기 (1.5Kg/cm²)
- 고순도 수소발생기 (99.999%)

지사모집 자동차엔진크리닝 수소발전기 판매사업에 참여하실분

LED 사업부문

- 가로등용 LED (50W ~ 200W)
- LED Tube Light / Bulb (5W ~ 25W)
- LED 스탠드 (8W ~ 15W)

지사모집 LED Light 판매사업에 참여하실분

지사/대리점 모집
※ 유경험자 우대
www.samwon-triver.com
Homepage 참조

경력사원 모집
www.samwon-triver.com
Homepage 참조

경남 창원시 성산구 성주동 30-5번지 Tel.055-213-7000
 신재생에너지사업부 Tel.080-018-7000